

전흔세대(焼け跡世代) 소년의 전쟁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사육(飼育)』을 중심으로—

홍진희*
(e-mail : jhh@kg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전흔세대의 전쟁과 『사육』 | 4. 흑인 병사와의 인간적 유대, 그리고 결별 |
| 2. 포획된 ‘짐승(獸)’으로서의 흑인 병사 | 5. 나가며
:산간마을을 뒤덮는 전쟁의 악취 |
| 3. ‘가축(家畜)’으로 사육되는 흑인 병사 | |

Key Words : 大江健三郎(Kenzaburo Oe)、飼育(Shiiku)、焼け跡世代(Burn-mark generations)、戦争(war)、黒人兵(Black soldier)、獸(beast)

1. 들어가며: 전흔세대의 전쟁과 『사육』

오에 겐자부로(1935-)의 『사육』은 『문학계(文学界)』 1958년 1월호에 발표된 작품으로, 그 해 상반기 아쿠타가와상(芥川賞)을 수상하였다. 오에는 바로 전 해인 1957년에 『사자의 오만(死者の奢り)』으로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올라 이미 문단의 주목을 받았지만, 명실상부하게 『사육』으로 인해 당시 최연소 수상자로서, 문단의 총아로서 이름을 알리게 된다.

특히 『사육』은 작품의 ‘풍요로운 이미지(豊饒なイメージ)’와 ‘뛰어난 문체(みごとな文体)’를 높이 평가한 에토 준(江藤淳)의 호평으로 유명하다.¹⁾ 소네 히로요시(曾根博義) 역시 은유와 직유로 표현되는 ‘감각적, 생명적 이미지’를 언급하였고,²⁾ 고타마 이츠로(小浜逸郎)는 오에의 사회적·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유치한 양심주의로

* 경기대학교 글로벌어문학부 일어일문전공 부교수, 일본근현대문학 전공

1) 江藤淳(1959) 「解説」 『死者の奢り・飼育』、新潮社、p.268

2) 曾根博義(1997) 「『死者の奢り』—「僕」のナラティブ」 『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43卷3号)学灯社、pp.27-28

평화하면서도 『사육』이 가지는 신화적 구조를 극찬했다.³⁾ 이 밖에도 국내연구로는, 산간마을의 자연과 아이들을 통해 나타나는 ‘정념(情念)’에 대해 분석한 신지숙과⁴⁾ 산간 마을·읍내·지하창고 등 각각의 공간이 등장인물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논한 조현구의 논문⁵⁾ 등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에서의 『사육』 평가는 대체적으로 이미지·문체·비유·신화적 구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기존의 선행연구에 이의(異意)를 제기하는 연구자들의 논문이 있어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면, 무라카미 가츠나오(村上克尚)의 「언어를 잃은 동물(言葉を奪われた動物)」⁶⁾과 다카하시 유키(高橋由貴)의 「화장되는 『서기』의 죽음(火葬される『書記』の死)」⁷⁾이 그에 해당한다. 먼저 무라카미는 『사육』을 ‘동물소설(動物小説)’⁸⁾로 지칭한 후, 이 작품에 대해 정론(定論)으로 평가되어 온 견해, 즉 에토 준의 인간중심적 근대주의사상과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미학적 견해에 의해 흑인이라는 다른 인종과 동물이 인간보다 열등한, 희생되어 마땅한 존재로 평가되어 온 것에 반론을 시사했다. 또한 다카하시의 경우는, 신화적 구조에 중심이 놓여 있던 선행연구에 이의를 제기하고 외진 시골마을 어린이에게까지 전달된 전쟁의 흉수를 기타 등장인물들—주로 읍내의 서기(書記)와 친구인 언청이(兎口)—과 비교해가며 분석하였다.

필자는 무라카미와 다카하시의 견해에 공감하는데, 이러한 공감의 배경에는 에토 준을 위시한 당대 유명 비평가들에 의해 『사육』의 평가가 정론화 되다시피 한 점, 그리고 그러한 평가에는 구성과 문체, 비유 등의 형식적인 부분이

3) 고타마는 『사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오에의 사회적·정치적 발언과 행동은 역사인식이 결여된 유치한 양심주의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이 작품의 문학으로서의 가치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小浜逸郎(2000) 「名作と人生 神話の復活; 『飼育』—大江健三郎』、『健康保険』(54卷10号)、健康保険組合連合会、p.16)

4) 신지숙(2009) 「오에 겐자부로의 『사육』론—에니미즘의 수사법—」 『일본언어문화』(14집)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p.363-384

5) 조현구(2007) 「『飼育』での閉鎖と解放の転倒」 『일본언어문화』(10집),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p.339-359

6) 村上克尚(2009) 「言葉を奪われた動物—大江健三郎『飼育』をめぐる江藤・三島の批評の問題点」 『日本文学』(59卷6号)、日本文学協会、pp.34-43

7) 高橋由貴(2010) 「火葬される『書記』の死—大江健三郎『飼育』における戦争」 『国文学解釈と鑑賞』(75卷9号)、至文堂、pp.131-138

8) 오에가 그의 초기소설에서 인간과 사물, 그리고 감정을 동물로 비유한 것은 하나의 큰 특징이다. 작품 속 동물 비유에 대해 오에는, 이러한 표현이 프랑스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피에르 가스카르(Pierre Gascar; 1916-1997)로부터의 영향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大江健三郎(2013) 『大江健三郎 作家自身を語る』、新潮社、p.50)

주로 거론되며 전혼세대⁹⁾의 전쟁 체험과 전후 인식은 간과되었다는 점 때문이다.¹⁰⁾ 실제로 『사육』이 대표적인 ‘전쟁소설’¹¹⁾로 불리면서도 작품에 나타난 전쟁의 의미에 대해 고찰한 논문은 많지 않은데, 이러한 배경에는 전쟁의 주체였던 성인 남성 이외의 사람들—즉 어린이, 여성, 혹은 피폭자, 피식민지인—에 의해 언급된 전쟁은 주변적(周邊的)인 것으로 평가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오에의 전작인 『사자의 오만』에는 주인공인 대학생 나(僕)와 수조 속의 사자(死者)가 나누는 상상속의 대화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자네는 전쟁 때, 아직 아이였지?

계속 성장하고 있었죠. 오랜 전쟁 동안, 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전쟁이 끝나는 것이 불행한 일상의 유일한 희망인 것 같은 시기에 성장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징후가 범람하는 속에서 질식해, 나는 죽을 것 같았다. 전쟁이 끝나고 그 시체가 어른들의 위(胃)와 같은 마음속에서 소화되고, 소화불능의 고형물과 점액이 배설되었지만, 나는 그 작업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매우 애매하게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었다. (『사자의 오만·사육』, p.25)¹²⁾

동경대학 재학시절 발표한 『기묘한 아르바이트(奇妙な仕事)』(1957)와 『사자의 오만』 등에는 대학생이 된 전혼세대 청년의 전후사회 인식과 타자 이해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청년의 마음 저변에는 어른처럼 소화하거나 배설해 내지 못한 전쟁의 기억이 잠재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기억은

9) ‘전혼세대(焼け跡世代)’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년기를 보낸 세대로, 일반적으로 1935년에서 1939년 사이에 태어나 전쟁 당시 ‘국민학교(国民学校)’—현재의 소학교—에서 공교육을 받았던 세대를 일컫는 표현이다. 전쟁 중의 군국주의교육과 전후민주주의 교육을 모두 경험하였으며, 노사카 아키유키(野坂昭如; 1930-2015)의 ‘전혼파(焼け跡派)’ 발언에서 비롯되었다. (<https://ja.wikipedia.org> ‘焼け跡世代’, 「焼け跡世代2人に聞く 野坂昭如さん・五木寛之さん; 「自分」問い、ひた走る」読売新聞 2000年11月29日号)

1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카무라 야스유키(中村康行) 역시 지적하고 있는데, 문단 데뷔 당시 오에의 지지자였던 히라노 겐(平野謙)과 에토 준이 오에의 ‘전후민주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전쟁비판’이나 ‘관념’을 배제하고 작품에 드러난 주인공의 ‘서정(抒情)’에만 주목했다는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나카무라의 경우 ‘전후민주주의’라는 사상적 프리즘으로만 오에의 문학세계를 분석·평가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中村康行(1995) 『大江健三郎—文学の軌跡』、新日本出版社、pp.44-45)

11) 고타마 이츠로는 『사육』이 전쟁소설 베스트3에 속할 만큼 뛰어난 작품이라고 언급하였다.(각주3과 동일, p.16) 또한 『사육』은 “THE CATCH and Other War Stories”(講談社、1981)로 영문 번역되어 일본의 대표적인 전쟁소설로 외국에 소개된 바 있다.

12) 『사자의 오만』 및 『사육』의 모든 인용문은 텍스트인 ‘大江健三郎『死者の奢り・飼育』(新潮社、1959)에서 발췌하였다.

작자인 오에로 하여금 어린 시절 자신이 전쟁을 경험했던 고향인 산간마을로 회귀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물로 『사육』은 탄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획물처럼 끌려 온 커다란 흑인을 설명할 단어를 찾을 수 없었던(獲物のように連れてこられた大きい黒人を説明する言葉を見つけない)’ 주인공 소년의 적군 병사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전후세대의 전쟁 인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포획된 ‘짐승(獸)’으로서의 흑인 병사

『사육』은 제2차 세계대전 말—1945년 여름으로 짐작되는—을 배경으로, 전투기의 불시착으로 인해 마을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 온 흑인 병사와 산간마을 소년과의 짧은 동거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주인공이자 화자인 소년은 대략 초등학교—당시의 ‘국민학교(国民学校)’—고학년으로, 작자인 오에의 자전적 체험이 바탕 되었다면 대략 만10세의 초등학교 5학년 정도로 짐작된다. 소년은 마을아이들과의 놀이를 즐기고, 때로는 친구 언청이와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하며, 읍내 여자아이에게는 이성적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춘기 소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마을 청년들의 부재와 간간히 배달되는 전사통지서 외에 전쟁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던 산간마을에, 적군의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마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마을의 남자 어른들은 추락한 비행기의 적군을 생포하기 위해 산을 수색하게 되고, 수색 끝에 한 명의 흑인 병사가 잡혀 온다.

나는 아이들과 무리를 지어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고, 어른들에게 둘러싸인 검고 큰 남자를 보았다. 충격과 같은 공포가 나를 흥분하게 만들었다. 어른들은 겨울철 멧돼지 사냥 때와 같이 무겁게 입술을 단단히 다물고는 《포획물》을 둘러싼 채, 마치 슬픈 듯 등을 구부리며 걸어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포획물》은, 회갈색의 실크로 된 비행복을 입고 잘 닦여진 검은 가죽의 비행용 구두를 신은 대신, 풀색의 상의와 바지를 입고 발에는 무거워 보이는 어울리지 않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리고 검게 빛나는 큰 얼굴로 저녁노을이 남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뚝거리며 다리를 끌면서 내려온다. 《포획물》의 양쪽 발목에는 멧돼지 털의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그것이 요란스런

소리를 냈다. 《포획물》을 둘러싼 어른들의 행렬을 따라,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입을 다문 채 무리를 지어 걸어갔다. (p.91)

소년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아버지와 남동생과만 살고 있었는데, 포수인 아버지는 짐승을 사냥해 그 가죽을 읍내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아버지를 비롯한 마을 어른들이 겨울철에 멧돼지 사냥을 한다는 사실에 익숙했던 소년은, 밭에 멧돼지 덫을 한 채 끌려 온 흑인 병사를 일종의 ‘포획물(獲物)’과 같은 존재로 인식한다. 한편 흑인 병사를 자신들의 거처인 창고—과거 양잠 장소로 사용되었던—의 지하(地下倉)에 감금하게 되자, 소년은 아버지에게 그의 신병 처리에 대해 묻는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녀석?” 나는 큰 맘 먹고 물었다.
 “읍내의 뜻을 알 때까지 기를 거야”
 “기른다고요?” 놀라서 나는 말했다. “동물처럼요?”
 “저 녀석은 짐승과 다를 바 없어” 라고 무겁게 아버지는 말했다. “온몸에서 소 냄새가 난다니까” (p.95)

소년은 적군인 흑인 병사를 ‘기른다(飼う)’는 아버지의 말에 놀라 ‘동물(動物)’처럼 기르는 것이냐고 되묻는다. 그의 물음에 아버지는 흑인 병사를 ‘짐승(獸)’이라고 지칭하며 그에게서 소 냄새가 난다고 답한다. 여기에서 두 사람이 각각 언급한 ‘동물과 짐승’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동물과 짐승의 정의¹³⁾

명칭	정의
동물 (動物)	① 생물계를 크게 둘로 구분할 경우, 식물에 반대되는 하나의 군(群). ② 인간 이외의 동물. 주로 짐승 종류를 말함.
짐승 (獸)	【けだもの】 또는 【けもの】. ‘털이 있는 것(毛の物)’이라는 뜻 ① 온 몸이 털로 덮인, 네 발로 걷는 포유동물. 특히, 야생 동물. 짐승. ② 인간다운 심성이 없는 사람을 경멸하여 일컫는 말. 비인간. ‘저 녀석은 인간의 털을 쓴 -이다’

흑인 병사를 기르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소년은 막연하게나마 사람이 아닌 존재를 가리키는 ‘동물’을 언급했지만,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짐승’이라는 표현

13) 松村明編(2006) 『大辞林』(第3版)、三省堂

을 사용함으로써 단순한 동물과 구분 짓고 있다. 즉 〈표-1〉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 야생동물로서의 짐승(獸)이 가지는 야수성, 즉 인간다운 심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경멸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 세계인 읍내와 연결된 유일한 통로였던 다리가 홍수로 인해 붕괴됨으로써 외부인은 마을에 진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비행기 추락이라는 설정에 의해 흑인 병사는 상공으로부터 낙하산을 통해 지상에 내려오고, 산에서 포로로 잡힌다. 그리고 ‘산에서 잡혀 멧돼지 덩에 채워진 흑인 병사’의 모습은 아버지의 발언과 함께 야수성을 가진 한 마리 짐승으로 소년에게 각인된다.

흑인병사를 짐승이라고 지칭하는 아버지의 발언에 처음에는 당황하던 소년도, 이내 아버지의 말을 수용하고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서 흑인 병사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소년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는데, 어머니가 없는 소년에게 있어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지만 두 아들을 위해 손수 식사를 준비하고 포수로서의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가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소년은 그러한 아버지를 신뢰하며 자랑스러워하는데, 그에게 있어 아버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窓)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어머니의 부재와 그로 인해 마을 어른들과의 교류가 소원한 상황이었기에—마을내의 사정에 밝은 친구 언청이와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아버지의 가치관은 소년에게 더욱 큰 영향을 주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아버지가 흑인 병사를 도축할 수 있는 짐승으로 여겼던 것에 반해 소년은 소유, 혹은 교감의 대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3. ‘가축(家畜)’으로 사육되는 흑인 병사

흑인 병사가 포로로 잡히기 전, 소년들은 마을 상공 위를 날아가는 적군 비행기를 발견하게 된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비행기에 관심을 쏟는 동생과 달리, 소년은 친구인 언청이가 놓쳐 버린 새끼 들개(山犬の仔)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하다.

우리들은 언청이와 헤어져, 해가 저무는 저녁 공기 가운데 커다란 짐승과 같이 웅크리고 있는 창고로 뛰어 돌아왔다. 아버지는 어두운 봉당에서 우리들의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행기를 봤어요” 라고 동생이 아버지의 등을 향해 외쳤다. “커다란 적군 비행기”

아버지가 신음하는 듯한 소리를 내며 돌아보려하지 않았다. 나는 청소를 위해 아버지의 무거운 엽총을 봉당 나무 벽의 충걸이로부터 꺼내, 동생과 어깨를 부딪쳐가며 어두운 계단을 올라갔다.

“그 개, 아까웠지” 라고 나는 말했다.

“비행기도” 라고 동생이 말했다. (p.84)

소년은 자신과 함께 ‘들개 사냥(山犬狩)’을 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혼자 새끼 들개를 사냥해 온 언청이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다. 그리고 언청이가 악전고투 끝에 데려온 들개를 눈앞에서 놓쳐 버리게 되자 아쉬움을 드러내는데, 인용문의 대사에는 이러한 소년의 감정이 관찰된다. 이후 새끼 들개를 향한 이러한 아쉬움과 갈망은, 포획물로 잡혀 온 흑인 병사에게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됨을 알 수 있다. 소년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창고 지하에 흑인 병사를 감금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왠지 모를 기대와 흥분에 휩싸이게 된다.

우리들은 《포획물》과 같은 집에 산다, 는 것이 되는 것이다. 다락방에서 귀를 기울인다 해도 지하실의 절규가 결코 들릴 턱이 없겠지만, 흑인 병사가 감금된 지하 창고 위의 침대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호사스럽고 모험적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의 사실이었다. (중략) 그리고 우리들은 아버지가 무거운 엽총과 피곤함을 떠받든 채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생각지도 못한 굉장한 행운에 서로 마주보며 미소 짓는 것이었다. (p.94)

소년은 흑인 병사를 기른다는 아버지의 발언에 처음에는 당혹감을 나타내지만, 이내 ‘벌거벗은 상태로 외치고 싶은’ 기쁨에 도취된다. 이는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적군 병사와 동일한 공간에 머물게 된다는 엄청난 모험에 대한 흥분과 기대감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소년은 다음날 아버지에게,

흑인 병사를 ‘앞으로도 계속 마을에서 기를 수 없는 것이냐’고 묻는데, 이러한 소년의 태도는 무료한 산간마을의 삶과 전쟁 말기의 침울한 분위기에서 새로운 변화를 고대하는 마을 아이들의 기대감과 유사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일종의 관계 및 소유에 대한 갈망과 무관하지 않다.

소년의 아버지는 포수라는 직업의 특성상 자주 집을 비웠고, 가사 및 동생을 돌보는 것은 온전히 장남인 그의 몫이었다. 작품에서 소년은 족제비 가죽을 팔러 읍내로 나가는 아버지의 조수 노릇을 하거나, 전투기 굉음과 흑인 병사의 존재로 인해 공포를 느끼는 동생을 다독이고, 또 식사준비를 도맡아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10세 남짓한 그가 어머니의 부재와 굶주림¹⁴⁾ 등으로 인해 정서적·신체적 결핍을 겪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핍은 관계와 소유에 대한 갈망으로 표출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소년의 가족이 거주하는 창고 지하에 흑인 병사가 감금된 후, 소년은 그에게 직접 식사를 가져다주고 그의 배설물을 퇴비장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말 그대로 흑인 병사를 ‘사육’하게 되고,¹⁵⁾ 그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키워 나가게 된다.

소년은 어른들이 지하 창고를 나가고 난 뒤, 바닥에 쓰러지듯 누워있는 흑인 병사를 발견하고는 그가 어른들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오해하며 분노한다. 그의 눈에 비친 흑인 병사는 ‘마치 두들겨 맞아 때려 눕혀진 가축(打ちのめされ、叩きふせられた家畜)’처럼 보인 것이다. 이렇듯 흑인 병사를 관찰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그와 보내는 사이, 소년의 눈에는 그가 ‘유순하고 온순하며 상냥한 동물(柔順でおとなしく、優しい動物)’ 혹은 ‘검고 둔한 짐승(黒い鈍重な獣)’으로 비취지고, 어느새 온순한 ‘가축(家畜)’과 같은 존재로 인식된다. 여기에서 가축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작품에서는 쌀과 보리 같은 식량이 모두 떨어져 아버지가 이웃에게 식량을 빌려 식사 준비를 하는 등, 소년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15) 다카하시의 소년이 흑인 병사에게 음식물을 배달하고 배설물을 치우는 행위를, 『기묘한 아르바이트』나 『사자의 오만』에서와 같은 아르바이트 행위의 일환으로 해석하였다. (高橋由貴(2010) 각주7과 동일, pp.132-133)

〈표2〉 ‘가축’의 정의

정의	출처
인간이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 사육하는 동물. 소·말·닭·양·돼지·개 등.	松村明編(2006) 『大辞林』(第3版)、三省堂
인간에 의해 길들여진 조류 이외의 동물로 고기, 알, 젖, 털, 가죽, 피부 등을 얻기 위한 것과, 노동력을 위해 기르는 동물. 반려동물(애완동물이라고도 함)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野口忠編(2010) 『栄養生化学辞典』、朝倉書店
가축이란 인간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야생동물로부터 유전적으로 개량한 동물이다.(중략) 가축은 이용 목적에 의해 농작용 동물(農用動物 farm animal), 애완동물(愛玩動物 pet animal), 실험용 동물(実験動物 laboratory animal)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나, 협의의 가축으로는 농작용 동물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加藤周一編(1998) 『世界大百科事典』(第2版)、平凡社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가축’이란 인간의 편의를 위해 사육하여 길들인 야생의 동물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속 소년의 경우는 흑인 병사를 처음에는 동물 혹은 짐승과 같은 존재로 수용하다가, 사육이라는 행위와 더불어 차츰 그를 일종의 반려동물—혹은 애완동물—인 가축과 같은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상냥한 동물’ 이나 ‘온순한 가축’과 같은 표현은 흑인 병사에게 인간 이하의 이미지를 구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의 구축은 무라카미를 포함한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탈식민주의(post colonialism)의 비평 대상이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¹⁶⁾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작품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소년이 서기(書記)—읍내 사람들 중 유일하게 친밀감을 가지고 교류하던 어른—의 멸시에도 불구하고 흑인 병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어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읍내로부터의 전언을 엿듣는 장면이다. 소년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금지나 자존심에 연연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自分の誇りや自尊心にかまっていられない時というものがある)’고 생각하며 서기로부터 상처받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소년에게 있어 흑인 병사는 일반적인 가축의 개념을 뛰

16) 村上克尚(2009) 각주6)과 동일, p.35

어 넘어,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지켜내야 할 특별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두 사람의 관계는 소통과 감정의 공유를 통해 ‘인간적인 유대(人間的なきずな)’로 발전해 간다.

4. 흑인 병사와의 인간적 유대, 그리고 결별

멧돼지 덫 때문에 생긴 염증으로 고생하는 흑인 병사를 위해 소년과 친구 언청이는 그의 덫을 풀어주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망가진 멧돼지 덫과 서기의 의족을 흑인 병사가 수리해주면서 그와 소년들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특히 소년은 자신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흑인 병사의 몸짓, 자신들을 향한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특히 그의 웃는 모습을 보며 인간적인 유대를 경험하게 된다. 급기야 소년들은 멧돼지 덫에서 해방된 그를 지하 창고에서 데리고 나와 지상인 광장(広場)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흑인 병사는 의족을 고쳐준 대가로 서기로부터 담배를 받아 피우고, 그에 대한 답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파이프를 서기에게 선물한다. 의족 수리 후, 흑인 병사와 서기가 상호간에 담배와 파이프를 교환하는 모습은 성인 남성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소한 교류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소년은 흑인 병사와의 교감을 통해 그가 ‘사냥개나 아이들, 나무와 같이 마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음(獵犬や子供たちや樹々と同様に、村の生活の一つの成分になろうとしていた)’을 감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흑인 병사의 존재는 마을의 구성원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된다.

흑인 병사는 입술을 둥글게 만 채 새와 같은 소리를 내며, 아버지의 두꺼운 손가락에 의해 건조되기 쉽게 지방이 훑어지며 생기는 가족의 주름들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무로 된 벽에 말려진 가족이 손톱처럼 딱딱하게 건조되어, 그곳을 핏빛의 얼룩이 지도상의 철도처럼 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흑인 병사가 감탄할 때, 나와 동생은 아버지의 《기술》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던지. 아버지마저 가족에 물을 뿌리는 작업 도중에 흑인 병사에게 호의적인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의 족제비 처리 기술을 중심으로 나와 동생과 흑인 병사와 아버지는 하나의 가족과 같이 맺어졌다. (pp.122-123, 밑줄 필자)

짐승이라 여겼던 흑인 병사가 몸짓으로 소통을 하고, 웃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가는 과정을 보며 소년은 그와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있음에 기쁨을 느낀다. 흑인 병사는 소년에게 있어 점차 친구이자 가족으로 인식되어 갔던 것이다.

그러나 읍내로 흑인 병사를 호송하라는 전언이 마을에 전달된 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흑인 병사는 소년을 인질로 삼아 지하 창고로 끌고 가고 그들의 유대관계는 막을 내리게 된다. 흑인 병사는 극도로 흥분하여 지하 창고의 입구를 자신이 수리한 멧돼지 텃으로 단단히 봉쇄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소년에게 있어 그가 마을 어른들에게 끌려 왔을 때의 처음 모습, 즉 ‘이해를 거부하는 검은 야수(理解を拒む黒い野獣)’ 또는 ‘민첩한 짐승(敏捷な獣)’으로 인식된다. 물론 흑인 병사는 눈빛을 통해 소년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나, 인질의 입장에 놓여진 소년은 배신감과 굴욕감에 그를 외면하게 된다.

흑인 병사가 비행기 추락 이후 마을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의 이동 장소, 그리고 그에 대한 소년의 인식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흑인 병사의 장소 이동과 소년의 시선 변화

흑인병사의 장소 이동	마을 상공 ⇒ 산 ⇒ 지하 창고 ⇒ 마을 광장 & 집 안(창고) ⇒ 지하 창고
흑인 병사에 대한 소년의 시선 변화	포획물 ⇒ 동물 ⇒ 짐승 ⇒ 가축 ⇒ 인간(친구 혹은 가족) ⇒ 짐승 ⇒ 적

결과적으로 흑인 병사는 소년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도끼에 의해 두개골이 쪼개지면서 무참히 살해당하고, 흑인의 두개골 위에 놓여있던 소년의 왼팔 역시 도끼에 잘려나가면서 소년은 평생 잊지 못할 전쟁의 상흔을 가지게 된다.

나는 공복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산양 젖이 담긴 물병을 든 아버지의 손이 내 입술에 닿자 구역질이 내 몸을 뒤흔들었고, 나는 큰 신음소리를 내며 입을 다물었기에 산양 젖은 목과 가슴에 흘러내렸다.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어른들에 대해 나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으르렁거리며 도끼를 휘둘러 나를 공격한 어른들, 그것은 기괴하고 나의 이해를 거부하며, 구토를 자극한다. 나는 아

머지가 방을 나갈 때까지 계속 신음소리를 냈다. (p.135)

인용문에서의 구역질이나 구토(嘔氣)란 상대에 대한 거부의 표현으로, 이는 아버지를 포함한 마을 어른들, 더불어 읍내에서 유일하게 소통하던 서기에게까지 전달된다. 그리고 흑인 병사의 상실과 어른들에 대한 분노로 인해 소년은 아버지의 손길조차 거부하게 된다.

인용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도구인 도끼(鉞)는 엽총(獵銃), 멧돼지 덫(猪罟)과 함께 살생(殺生)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나와 흑인 병사에게 휘두른 ‘도끼(鉞)’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손도끼(おのの斧)’가 아닌 동물을 해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작두의 형태와 흡사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¹⁷⁾ 에토 준은 아버지가 휘두른 도끼가 ‘작자의 유아성(infantilism)으로부터의 결별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¹⁸⁾이라고 해석했지만,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의 도끼는 나에게 이해 불가능한 기괴한 무기에 불과했다. 결국 소년이 의지하고 존경했던 아버지는 도끼라는 도구를 통해 적군 병사를 짐승처럼 도축하게 되고, 이는 소년에게 있어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긍지 역시 단절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흑인 병사를 짐승이라 지칭하며 차별했던 아버지를 비롯한 마을 어른들은 스스로가 짐승으로 돌변하여 적군인 흑인을 살해하게 되고, 소년의 눈에 그들은 ‘괴물(怪物)’처럼 변해간다.¹⁹⁾

작품에서 친구인 언칭이는 ‘검둥이(黒んぼ)’는 결코 적군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며 그를 대등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으며, 아버지는 거리낌 없이 적군

17) ‘鉞(なた)’의 정의를 살펴보면, ‘임업이나 수렵 등의 산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용도에 적합한 날붙이 종류이다. 나뭇가지 베기, 나무 깎기, 잡초 베기, 잡초 제거, 동물 해체(動物解体)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포수인 아버지에 의해 동물을 해부하는 용도로 쓰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https://ja.wikipedia.org> ‘鉞’)

18) ‘말하자면 이 작품에서 “전쟁”과 주인공의 내적인 성장이 푸가로 연주되며, 그것이 아버지의 도끼에 의한 번뜩임으로 합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적으로 말하자면, 흑인 병사를 도살하고 “나”의 손가락을 부순 도끼는 작자의 유아 행위(infantilism)로부터의 결별 의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江藤淳(1959) 「解説」 『死者の奢り・飼育』、新潮社、p.269)

19) 마을 어른들에 의해 흑인 병사가 살해되는 장면은 실제 전쟁 중에 벌어진 사건들을 소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시다 유타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포로정책에 대한 비인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포로수용소에서의 미군 포로에 대한 학대는 심각한 문제였고, 일본 본토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시작되자 격추당해 낙하산으로 착륙한 미군을 민간인이 살육하는 사건이 다발적으로 발생했다’(吉田裕(2007) 『アジア・太平洋戦争』、岩波書店、p.175)

인 흑인 병사를 짐승으로 지칭하고 그를 사육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들의 발언을 통해 도회지와 차단된 산간마을에까지 침투한 ‘프로파간다(propaganda)’, 즉 태평양전쟁 이후 적군인 미군과 영국군을 ‘귀축미영(鬼畜米英)’이라 칭하던 군국주의적 가치관과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반영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흑인 병사와의 동거를 통해 그와 인간적 교감을 나누게 되었던 소년은, 적군 호송이라는 현(県)의 명령 앞에 흑인 병사는 물론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어른들과의 유대 관계를 상실하게 된다.

5. 나가며: 산간마을을 뒤덮는 전쟁의 악취

『사육』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나와 동생은 계곡 아래 가설 화장터, 무성한 관목을 처낸 후 얇게 흙을 파냈을 뿐인 나무의 진과 재 냄새가 나는 부드러운 표면을 나무토막으로 휘젓고 있었다. (중략) 우리들은 《채집》을 포기하고, 무성한 여름 풀숲 깊은 곳으로 나무토막을 내던지고는 어깨동무를 하고 마을 셋길을 올라갔다. 우리들은 화장터로 시체의 뺏조각, 가슴에 장식할 기장(記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모양의 뼈를 구하러 왔던 것이었지만, 마을 아이들이 이미 그것을 다 채집해갔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것도 손에 넣을 수 없었다. 나는 초등학교 한 패 중 누군가를 때려눕히고 그것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p.80)

연일 계속된 장마—‘집요하게 오랜 기간 비가 내려 홍수를 일상적인 것으로 만든 장마(執拗に長い間降り)つづけ洪水を日常的にした梅雨’—로 인해 읍내와 연결된 다리가 끊겨, 마을에서는 가설 화장터를 만들어 사자(死者)를 화장하게 된다. 적군의 공습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도시와 달리 소년이 거주하는 산간마을은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쟁 말기의 마을에서도 질병이나 기아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 갔음을 추측할 수 있다.²⁰⁾ 인용문에는 이러한 인간의 죽음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소년의

20) 태평양전쟁에 의해 일본 역시 극심한 식량부족을 겪게 되면서 특히 결핵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졌는데, 1930년대 후반 한 해 14만 명이었던 결핵 사망자는 1943년에는 17만 명에 이르게 된다.(이안부루마 저, 최은봉 역(2014) 『근대일본』, 을유문화사, p.142)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는 불현듯 이틀 전 목격했던 여성의 시신을 떠올리고는 도망치듯 화장터를 벗어나려 한다. 그러나 공포심에 휩싸여 ‘사자의 악취(死者の臭い)’로부터 도망쳤던 소년은, 흑인 병사와의 만남과 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결국 전쟁의 악취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됨을 예감하여 작품은 막을 내린다.

나는 두려웠다. 동생의 가느다란 팔을 꼭 붙잡고 나는 발걸음을 서둘렀다. 장수풍뎅이의 일종이 우리들의 딱딱해진 손가락에 들러붙어 흘러대는 끈적거리는 분비액처럼, 사자(死者)들의 악취가 콧구멍으로 회복되어 오는 것 같았다. (p.80)

골짜기 아래로부터 망치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골짜기의 울창함에 들쭉되어 가려진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수목의 거대한 밑가지처럼, 죽은 외국 병사의 악취는 그대로 고착하려 하고 있었다. (p.141)

일반적으로 인간의 감각은 시상(視床)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쳐 대뇌의 전문영역으로 전달된 후 인지되는데, 후각만은 그러한 중간과정 없이 직접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로 전달된다고 한다. 즉 이러한 사실은, 특정 냄새가 의식적인 사고 없이 빠르고 확실하게 기억을 재생시킴을 의미한다.²¹⁾ 가설 화장터로부터 사자의 악취를 피해 도망쳐 나온 소년은, 결국 읍내의 명령으로 인해 화장조차 할 수 없게 된 흑인 병사의 시신이 썩는 악취로 인해 잊을 수 없는 전쟁의 기억을 간직하게 된다.

『사육』은 제2차 세계대전 말을 시간적 배경으로, 산간마을을 공간적 배경으로 묘사한 오에의 첫 번째 소설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작품은 신화적 구조와 함께 상징·비유·문체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평가되어왔으나, 이러한 구조와 다양한 수사표현은 전후세대의 전쟁인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사육』을 단순히 서정성 있는 목가적 이야기로 보기는 어려우며, 적군인 흑인 병사를 바라보는 소년의 인식 변화—즉, ‘포획물 ⇒ 짐승 ⇒ 가축 ⇒ 친구 혹은 가족 ⇒ 짐승 ⇒ 적’—와 팔이 잘려나가는 체험을 통해, 전후세대가 경험했을 정신적 혼란과 전쟁의 참혹함을 그려낸 작

21) 최현석(2009) 「후각과 기억」 『인간의 모든 감각』, 서해문집, pp.249-250

품이라 평할 수 있겠다.

오에의 초기작품 중 일명 ‘동물소설’은, 주로 작은 동물(小動物)에 의한 다양한 비유를 통해 특정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는 생동감 있는 묘사와 더불어 주로 인간을 희화화(戲画化)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²²⁾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언급한 『사육』의 경우는 그의 여느 동물소설과는 달리 등장인물들—흑인 병사 및 마을 어른들—의 모습을 야수성을 가진 짐승으로 묘사함으로써, 전쟁 중의 프로파간다와 폭력으로 인해 변질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과 전쟁에 대한 비판의식을 그려내고 있다. 더불어 흑인 병사의 체취 및 죽음의 악취라는 후각적 요소를 통해 전혼세대에게 각인된 전쟁의 기억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나병철(2006) 「전쟁체험과 성장소설」 『청람어문교육』 (33집), 청람어문교육학회, pp.165-199.
- 신지숙(2009) 「오에 겐자부로 의 『사육』 문—애니미즘의 수사법—」 『일본언어문화』 (14집),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p.363-384.
- 이안부루마 저, 최은봉 역(2014) 「서양과의 전쟁」 『근대일본』, 을유문화사, pp.129-152.
- 이재성·박승애(2012) 「오에 겐자부로의 『사육』 일고찰」 『일본문화연구』 (43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473-491.
- 조현구(2007) 「『飼育』での閉鎖と解放の転倒」 『일본언어문화』 (10집),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p.339-359.
- 주지영(2013) 「전후의 공간표상을 통한 세대별 의식 탐구」 『한국문예창작』 (제12권 제3호), pp.167-192.
- 최현석(2009) 『인간의 모든 감각』, 서해문집, pp.243-254.
- 홍진희(2007) 「오에 겐자부로 소설에서의 동물 비유—『개인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22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p.359-378.
- _____ (2014) 「오에 겐자부로의 『사육』 과 야마다 에이미의 『베드타임 아이즈』 비교—흑인 남성 에 대한 묘사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90권 2호), 한국일어일문학회, pp.227-242.
- 江藤淳(1959) 「解説」 『死者の奢り・飼育』、新潮社、pp.266-270.
- 大江健三郎(1959) 「飼育」 『死者の奢り・飼育』、新潮社、pp.80-141.
- _____ (2013) 『大江健三郎 作家自身を語る』、新潮社、pp.48-74.

22) 홍진희(2007) 「오에 겐자부로 소설에서의 동물 비유—『개인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22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375

- 紅野敏朗(1971)「飼育」(70年代の政治と性・大江健三郎 特集)『国文学 解釈と鑑賞』至文堂、pp.81-85.
- 小浜逸郎(2000)「名作と人生 神話の復活 ; 『飼育』—大江健三郎」『健康保険』(54巻10号)、健康保険組合連合会、pp.14-17.
- 曾根博義(1997)「『死者の奢り』—「僕」のナラティブ」『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43巻3号)学灯社、pp.24-30.
- 高橋由貴(2010)「火葬される『書記』の死—大江健三郎『飼育』における戦争」『国文学 解釈と鑑賞』(75巻9号)、至文堂、2010.9、pp.131-138.
- 中村康行(1995)「〈2〉短編集『死者の奢り』」『大江健三郎—文学の軌跡』、新日本出版社、pp.20-52.
- 村上克尚(2009)「言葉を奪われた動物—大江健三郎「飼育」をめぐる江藤・三島の批評の問題点」『日本文学』(59巻6号)、日本文学協会、pp.34-43.
- 吉田裕(2007)「総力戦の遂行と日本社会」『アジア・太平洋戦争』岩波書店、pp.133-177.

논문 투고 일자 : 2018. 10. 14.
논문 심사 일자 : 2018. 11. 07.
게재 확정 일자 : 2018. 11. 09.

<要旨>

焼け跡世代の少年における戦争
—大江健三郎の『飼育』を中心に—

洪珍熙

大江健三郎(1935~)の『飼育』(1958)は芥川文学賞の受賞作で、第二次世界大戦が終わる頃の、谷間の村を背景としている。主人公であると同時に語り手である少年は、戦争の直接的な影響は受けて、退屈な日々を送っていた。そんな中、ある日、敵軍の戦闘機が山に不時着し、一人の黒人兵が村の大人たちによって捕虜として捕まえられる。

少年は最初、黒人兵を獣のように扱う自分の父親の態度に当惑を感じるが、黒人兵との同居を通して、少しずつ彼と人間的な関係を持ち始める。しかし、黒人兵を町まで護送するという伝言によって、彼との関係は破局を迎え、父親の鉞によって黒人兵は虐殺される。

『飼育』は神話的な構造をはじめ、象徴・比喩・文体などを中心に評価されてきた。その反面、焼け跡世代—戦中、幼少期を過ごした人々の戦争認識は見過ごされた傾向がある。だが、作品には、黒人兵を眺める少年の視線の変化—獣⇒家畜⇒友人⇒家族⇒獣⇒敵軍—と、火葬されずに腐敗する黒人兵の死体からの臭いを通して、焼け跡世代の精神的な混乱と明確な戦争の記憶が示されていることが分かる。

The War in the eyes of a boy of the Burn-mark generation
—Focusing on “*Shiiku*” by Kenzaburo Oe—

Hong, Jin-Hee

“*Shiiku*”(1958) by Kenzaburo Oe(1935~) won the Akutagawa Prize, a major literary award. The story has a valley village in the background and a setting at around the end of World War II. The main character and narrator is a boy, who was not directly influenced by the war and spent his days being bored. However, one day, an enemy fighter made a forced landing on the mountain, and its black soldier was caught as a prisoner by the adults in the village.

The boy initially felt embarrassed about the attitude of his father toward the black soldier, who considered him a beast, but he gradually began to have a human relationship with him through living together. However, when escorting the black soldier to town, the relationship with him broke, and the boy's father slaughtered black soldier with a hatchet.

“*Shiiku*” has been recognized as having a mythical structure that is symbolics, figurative, and stylistic. However, the perceptions of the Burn-mark generations who was raised during the war have been overlooked, despite it being a War Novel. Nevertheless the change in the boy's perspective on the black soldier, i.e., “beast ⇒ livestock ⇒ friend ⇒ family ⇒ beast ⇒ enemy”, and the smell of a corpse shows the Burn-mark generation's confusions and intense memories of the war.